

퀘이사 월간지_2020년_06월호
대선 테마주 대장주_남화토건(091590)

작성자: 땡기왕자

*6월호는 8PAGE부터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05월호



=>손흥민 축구경기를 보다보면, '토트넘이 이길까, 질까?'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지만, '손흥민이 골을 넣을까, 안 넣을까?', '토트넘이 골을 먹힐까, 안 먹힐까?', '토트넘이 옐로우카드를 받을까 말까?' 등 경기 승부와 관계없이 정말 다양한 베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고, 저처럼 정석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도 있고, 테마주에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는 또 각자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투자 조언이라도 그 조언을 해준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누군가

에게는 좋은 조언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쁜 조언이 되기도 합니다.

=>가치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트레이더가 조언을 해주면 나쁜 조언이 되고, 트레이더에게 가치투자의 조언을 해주면 나쁜 조언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 입문자들이 주식책을 통해 공부를 처음 시작할 경우에는 그 책의 지은이가 어떤 투자 스타일을 지향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간혹, 수많은 투자 대가들의 조언들을 합쳐놓은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은 주식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 주식 입문자들이 볼 경우에는 혼선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경기를 보더라도, 토트넘의 승리와 상관없이, 만약 토트넘이 경기에 지더라도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흥민이 골을 넣는다는 베팅한 사람은 설령 토트넘이 경기에 지더라도 베팅이 성공한 것입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경기의 승패는 강세장, 약세장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약세장이라도 테마주에 승부를 걸어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보통 테마주는 시장이 약세장 또는 강세장 속에서도 지지부진한 마디 조정이 생길 때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마주는 테마주의 룰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치투자, 정석투자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테마주 영역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대선 테마주>입니다. 이 쪽 바닥에서는 5년마다 열리는 큰장이지요.

=>보통 대선이 있기 전, 2년 전쯤 투자해서 대선 결과가 나오면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시장이 약세장에 돌입하거나 강세장에서 마디 조정에 돌입하게 되는 시점(시장 고점)이 테마주가 상승하기 직전의 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시장이 강세장에서 약세장에 처음 돌입하기 시작한 4월 초중반부터 <남북경협 섹터>가 테마주의 대장 섹터로 등극하였습

니다.

=>그리고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는 <총선 테마주>가 테마주의 대장 섹터로 등극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강세장이 시작되는데, 강세장이라고 시장이 항상 강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마디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여름장이 바로 강세장의 마디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장에서는 6월1일 국회 시작과 함께 <정책 테마주>나 2년 앞둔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움직이는 시절이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안랩(053800)



*코스피 지수



=>2011년 <대선 테마주> 대장주였던 안랩을 보면, 그 출발점이 바로 지수의 강세장이 꺾이는 시점이었습니다. 2011년 8월입니다.

=>늘 지수의 변곡점(강세->약세)에서 테마주는 바닥을 잡고 지수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2018년 4월 남북경협주도 지수가 2년 강세장(2016년~2017년)을 끝내고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곳에서부터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남선알미늄(008350)



*코스피 지수



=>2018년도는 지수가 저렇게 되는 바람에 투자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충선 테마주>였던 남선알미늄도 2018년10월 지수가 약세장 국면 2번째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시점부터 시세를 분출하였습니다.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약세장(2018년~2019년) 3번째 변곡점에서는 모나미, 신성통상같은 <애국 테마주>가 시세를 분출하였습니다.

=>약세장 변곡점 마지막인 4번째 국면(코로나19 창궐)에서는 씨젠과 같은 <진단키트, 치료제 코로나 테마주>가 지수와 반대로 시세를 분출하였습니다. 늘 시장의 마지막 변곡점이 가장 다이내믹합니다.

=>이번 여름은 강세장(2020년~2022년) 1번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황보/조정장에서 테마주 섹터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국회 시작과 함께 <정책 테마주> 그리고 <대선 테마주>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테마주>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원격입니다. 원격은 이미 레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죠?

=><정책 테마주>는 보통 지수와 연동되어 움직이지, <코로나 테마주>처럼 지수와 아예 반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대선 테마주>는 지수가 강세장 속에서 조금 정체하는 흐름 속에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선 테마주>는 대선 잠룡들을 중심으로 학교 동창, 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대선후보와 우리 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공시를 낼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공시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아무리 기업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 주가가 형성되니 주식을 살 돈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자기들만의 룰을 가지고 게임을 즐깁니다.

=>이런 시장의 룰이 싫은 사람은 아예 그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시장의 룰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의 룰이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명 시장에 순응한다고도 하죠.

=>개인투자자가, 시장을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을 부정한 댓가는 자신의 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름장(지수 홍보/조정장->폭락 의미 아님)
 <대선테마주> 대장주는 남화토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목표 보유기간은 3개월인데, 그보다 시세가 빨리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대선테마주 대장주가 되려면 다음 대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주라고 섹터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으로 그 섹터를 전체적으로 끌고간다는 의미입니다.

=>섹터 대장주가 고점이 나오면 그 섹터에 속해있는 종목들은 전부 매도해야 됩니다.

=>대장주가 아니면 스스로 고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남화토건은 최재훈 이사와 이낙연 의원과 광주제일고등학교 죽마고우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이미 이낙연 의원이, “그렇다. 최재훈 이사는 나의 죽마고우다.”라고 밝힌적이 있었지요.

=>이에 남화토건은 2017년 5월 10일 대선 정국에서 공시를 통해, “이낙연 의원과 당사의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바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이낙연테마주? 남화토건 급등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2017-05-10
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내용	<p>-2017년 5월 10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이낙연테마주? 남화토건 급등" 등의 기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p> <p>-당사 대표이사 최재훈과 이낙연 지사는 광주제일고등학교 동창은 맞으나, 업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아 이낙연지사의 향후 향배가 당사의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p>-따라서 해당보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주가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 역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p>공시책임자 서삼석이사</p>
※ 관련공시	-

=>또한, 남화토건은 2018년 4월 <남북경협주>로도 엮이면서 과연, '테마주의 황제'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남북경협주>는 테마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작년에 <북미협상>을 통해서 NEW경제, OPEN경제에 대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수뇌부들이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하겠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 맞춰 나가는 것인데 소중한 것을 내어주지 않고는 본인들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겠죠.

=>그나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선택권조차 없었던 북한에게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그 타이밍에 트럼프가 원하던 것을 일부 내어주더라도 경제 제재가 풀리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통일 경제 구상도 뒤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 실패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북한의 경제 제재가 풀리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설령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협상

을 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남북경협주>계열로 묶여있는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테마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적대비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서 투자하는게 아니므로 실적분석은 생략합니다.

=><남북경협주>를 꺾고, <정책테마주>와 <대선테마주>가 지수가 어리버리할 때 테마 섹터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대선테마주>의 대장주는 남화토건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술적분석



=>테마주는 원칙적으로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올해 여름 최고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수는 강세장 속에 마디 조정으로 어리버리할 수 있는데 그런 시장 속에서 <대선테마주>가 소나기를 피해가는 우산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남화토건이 <대선테마주> 대장주로 등극하게 되면 여름장 동안 목표주가는 30,000원입니다.

♣♣♣2020년0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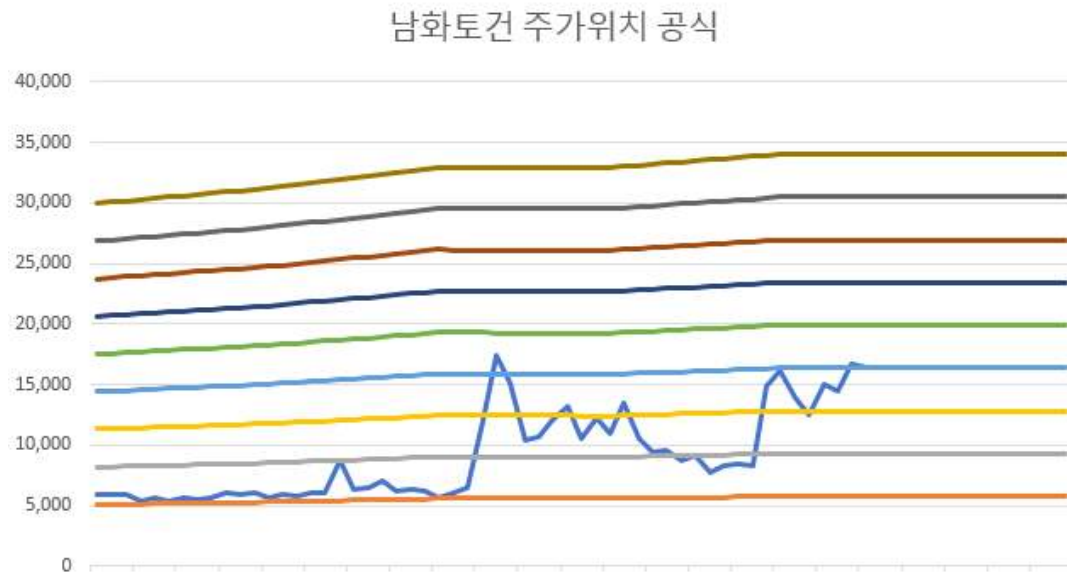
=>아무리 회사에서, '우리는 후보와 관련이 없다.'고 공시를 내도, 시장에서는 플레이어 마음대로 포지션을 정하면 그만입니다. 게임의 룰이 그렇습니다.

=>보통 여름에 지수가 횡보, 조정에 들어가면 테마주의 장이 열리는 데, 테마주의 양대 산맥이 <남북경협>이랑 <총선/대선>입니다.

=>여기서 남북경협은 북한과의 관계가 이리 되었으니... 나가리(?)입니다. 안 합니다.

=>남북경협은 남북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총선/대선은 반드시 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 안 하는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확실성은 없습니다.

♣기술적분석



=>남화토건을 주가 알고리즘 공식에 넣어보면 진한 회색이 발목, 노란색이 무릎, 파란색이 허벅지, 연두색이 허리입니다.

=>이번에 대선 테마를 타기 시작하면 주가는 최대 30,000원까지는 보입니다.

=>2018년~2019년 약세장에서 5G섹터가 위로가 되었듯이, 이번 3월 24일 이후 시작된 강세장 여름 지수 횡보/조정장에서 대선테마주가 심심한 위로가 되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

※월간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